



오렌지몽키 이동식 미니 스튜디오 '폴디오'

10초면 조립 ... "전문 사진 스튜디오 못지않아요"

전문 포토그래퍼처럼 혼자서도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일반인이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해 원하는 장소에 가지고 다니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동식 스튜디오를 만들어 보며 어떤가. 문상근 오렌지몽키 대표(36)는 이런 생각으로 포터블 미니 스튜디오 '폴디오(Foldio)'를 개발했다. 문 대표는 "소품을 촬영하는 블로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기업체 디자이너 등 사진을 잘 찍으려는 사람들과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디지털 세대를 위해 제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오렌지몽키 개요	
설립	2011년 4월
대표	문상근
제품	폴디오
특징	이동식 미니 스튜디오
매출	17억원(지난해)

자료:오렌지몽키

LED조명 이용해 밝기조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블로거·디자이너 등 호평

美 클라우드 펀딩서 3회 걸쳐 170만불 모아

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피사체에 따라 스튜디오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나온 '폴디오360'은 스마트폰 테이블을 더했다.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천천히 360도 회전한다. 스마트폰 전용 앱(응용프로그램)과 블루투스 기술로 물체가 회전하는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3개의 LED 조명 시스템을 조도와 그림자를 조절해



문상근 오렌지몽키 대표가 휴대용 소형 스튜디오 '폴디오'를 활용하고 있다.

주는 '폴디오3'(가로×세로×높이 각 62.5cm)를 출시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폴디오 시리즈는 해외에서 인정받은 상품이다. 미국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 '킵스타터'에서 3회에 걸쳐 누적 170만달러가량을 모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 아이디어와 목표액, 개발 완료 시점 등을 올려놓고 펀딩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는 킵스타터에서 상품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문 대표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50여 유통업자들을 통해 전달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하고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한 세

대는 이미지 콘텐츠 생산에 더 적극 참여할 것이고, 3차원(3D) 쇼핑 등이 본격화되면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공학 학부 및 석사 과정을 마친 문 대표는 29세이던 2011년 친구 두 명과 함께 창업했다. 첫 사업 아이템은 쇼핑검색 알고리즘이었다. 얼마 안 가 망했다. 펀딩을 받기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에 법인을 세우고 킵스타터에 내놓은 아이디어를 찾았다. 문 대표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만든 물건을 세상에 내놓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싶었다"고 창업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매일(ykyoon@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5-7월 으뜸중기 제품 △리얼스 판-리얼리인 기능성 밸런스 골프공 △슬리디어랩-내가 만드는 스마트토이 벨트 △타임이앤쇼-와로스(아외용 숏볼 바비큐 그릴) △오렌지몽키코리아-폴디오3(포터블 미니 스튜디오) △윈소프트다임-윈소프트다이어트 △유니크미-제주 천연 약초 발효 마스크팩 유니크팩 △지비솔루션즈-루나 스퀘어 엘리스 △어택트-다운핏

렌지몽키는 국내에 4명, 미국에 3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7억원 정도였다.

문 대표는 "아이디어가 뒷받침된 복잡한 상품은 그만큼 고민을 덜 한 상품"이라며 "간단해 보이지만 누구나 고품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폴디오처럼 '단순하지만 유용한(simple but useful)'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임신부 6시간 근무·하루 세끼 무료 어린이집 한sem, 직원 '워라벨' 속도낸다

(임과 삶의 균형)

한sem 직원들은 작년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논란이 있었고, 사내 성폭력 사건도 겪었다. 브랜드는 큰 상처를 입었고, 한sem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한 직원은 "(작년 말 서울 상암동 본사로 이전하기 전) 방배동 회사 근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가 두려웠다"며 "다른 테이블에 앉은 지역 주민들이 회사를 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밥 먹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회사다니기 팬클럽'이라는 질문을 받은 직원도 적지 않았다. 어떤 직원은 술자리에서 사건을 과장 왜곡하는 다른 손님과 싸우기도 했다.



김혜원 차장(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진희 사원, 허진선 차장, 이한빈 대리.

작년 사내 성폭력 사건 이후 조직문화·삶의 질 개선 노력

힘든 시간을 보낸 한sem 직원들은 25일 상암동 본사에서 만났다. 그들은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많이 놀랐다. 그 사건 이후 회사는 더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정 도록 폴디오처럼 '단순하지만 유용한(simple but useful)'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 7월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이한빈 대리(35)는 다음달 둘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하루 8시간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고, 임신부는 6시간(오전 8시-오후 3시, 점심시간 제외)만 일하면 되도록 제도가 마련돼 큰 부담이 없다고 했다. 한sem은 올 초 'PC 오프제'를 도입했다. 어린이집을 자력으로 끄는 직원도 있었다. 여섯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둔 허

진선 차장(40)은 작년 말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확장한 어린이집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오전 7시30분부터 12시간 동안 운영되는 데 아이들에게 하루 세 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어린이집은 여직원들이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될 정도"라고 소개했다.

팀장급 김혜원 차장은 5년 만인 지난 4월 한sem에 재입사했다. 김 차장은 "돌아온 회사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워라벨' 문화가 자리잡은 걸 확연히 느낀다"고 말했다. 한sem은 최양하 대표 직속으로 기업문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좋은 일터 만들기 위원회와 모성보호위원회 등도 신설했다.

한sem은 또 작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달 초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성차별까지 보호 대상 확대 △성고충심의회 위원회 운영 △수직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개설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코스맥스, 태국 공장 가동 ... 동남아 뷰티 시장 공략

기초 및 색조화장품 年 3000만개 생산

코스맥스가 태국 공장을 가동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생산(ODM)업체 코스맥스는 태국 법인(사진)에서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태국의 수도인 방콕 인근 방플리 지구에 있는 공장은 9000㎡ 규모로 연간 생산량은 약 3000만 개다. 직원 수는 150여 명으로 기초 및 색조화장품을 주로 생산한다. 태국 공장 가동으로 코스맥스의 전체 연간 생산 가능 수량은 16억 3000만 개를 넘어섰다. 전 세계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코스맥스는 태국 1위 화장품 회사인 미스틴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브랜드 개발생산(OBM)을 맡을 예정이다. 미스틴은 태국 슈퍼마켓, 헬스앤드뷰티(H&B) 스토어에서

화장품을 판매해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걸 일 코스맥스 태국 법인장은 "태국은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시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태국 화장품 시장은 2016년 기준 56억 2850만 달러(약 9조 282억 원) 규모로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존슨앤드존슨, P&G, 유니레버 등 글로벌 브랜드의 화장품 생산 공장이 태국에 몰려 있다. 코스맥스는 현지 수요에 따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이원화해 아세안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 있다. 볼고 국가인 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동일 문화권으로 수출하고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생산해 말레이시아 등 인근 이슬람 국가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경수 코스맥스 그룹 회장은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도 제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수출 국가가 점차 다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귀뚜라미범양냉방, 첫A+ 신용 비결은?

귀뚜라미가 인수한 후 강도 높은 체질개선

냉난방·공조업체인 귀뚜라미범양냉방(옛 범양냉방공업)이 설립 55년 만에 처음 신용등급 'A+'를 받았다. 2006년 귀뚜라미그룹에 인수된 뒤 강도 높은 체질개선 작업을 한 덕분이다. 귀뚜라미범양냉방은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신용등급 A+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1963년 설립된 귀뚜라미범양냉방은 1967년 스탠드 에어컨을 생산한 이후 시스템 에어컨, 냉동기, 공조기 등 국산화에 성공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1998년 모기업인 범양상선의 자금난으로 부

도가났다. 2002년 가야산업 컨소시엄으로 넘어갔다가 2006년 귀뚜라미에 다시 인수됐다. 당시 매출은 920억원, 신용등급은 'CCC+'였다.

귀뚜라미는 인수 후 체질 개선과 품질 경영에 집중했다. 선물과 찬바람을 만드는 '산업용 냉동탑'은 보통 자제를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한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장에 가서 쌓기만 하면 되는 블럭형 냉각탑을 개발했다. 신제품 개발을 원가와 공사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인수 이후 인력 구조조정은 없었다. 대부분의 직원이 순환근무하면서 전문성이 쌓여 1인당 생산성도 높아졌다. 2011년부터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부동산 매입, 매각, 임대,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어반에셋

☎ 010-5271-0960

<p>매매·임대 물건 구함</p> <p>1. 매매 물건 *지 역 : 서울지역 수익용 빌딩 *가 격 : 30-100억원 *매입자 : 연예인, 운동선수, 개인투자자</p> <p>2. 임대 물건 *지 역 : 서울 강남구 *동일대 1,000㎡ 이상물건 *임차인 : 외국계 제약, IT, 기업체</p> <p>▶채용공고(경력팀장) *중개실적 경험자 *빌딩매매 · 오피스임대 · 리테일임대 *상세 문의 당사 홈페이지 참조</p> <p>▶당사 전속(PM) 물건 문의절차 1. 명함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면 접수 완료 2. 이메일 : 33first@naver.com 02-6196-7800 3.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IM자료 발송 4. 당사 방문 상담 가능 5. 당사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5 어반벤처빌딩 16층 당사 실 거래 오피스 물건 사이트 개설 검색어 : 스토리오피스 www.storyoffice.co.kr</p>	<p>강남역 빌딩(매각)</p> <p>*대지 : 850㎡ *건물 : 5000㎡ *가격 : 1980억원</p> <p>특징 : 전국의 공사지가 1위는 명동8길, 강남은 생계 건물이며 성장적인 건물임.</p>	<p>테헤란로 빌딩(매각)</p> <p>*위치 : 테헤란로 선릉역 대로변 *대지 : 660㎡ *건물 : 6,000㎡ *층수 : 18층 *매매가 : 460억원</p> <p>특징 : 사육용 및 임대수익용, 테헤란로 유일하게 1건 매물임</p>	<p>강남 전철역 토지(매각)</p> <p>*대지 : 2,800㎡ *건물 : 7,000㎡ *매매가 : 420억원 *용도 : 사육용, 2030주택 개발용</p> <p>특징 : 강남 지하철 입구 광대로 토지</p>	<p>명동 빌딩(매각)</p> <p>*대지 : 350㎡ *건물 : 1700㎡ (6층 건물) *연수익 : 6%이상(개 임대시) *가격 : 200억원 → 180억원</p> <p>특징 : 대기업 통임대 예정, 지가 급증지역</p>
<p>대천항 부지(급매)</p> <p>*면적 : 10,467㎡ (토목공사 완료) *용도 : 호텔, 콘도미니엄, 리조트 *가격 : 150억원 → 110억원(급매)</p> <p>특징 : 대지정면이 100% 바다조망, 인연도까지 관광해저터널 원공예정</p>	<p>올근생 빌딩(매각)</p> <p>*대지 : 420㎡ *건물 : 1,700㎡, 7층 *보증금 : 35,000만원 *연 임대료 : 3억원 *매매가 : 70억원</p> <p>특징 : 1,2층 스타벅스 입점, 유명대학 최고요지</p>	<p>청담동 건물 통임대</p> <p>*위치 : 강남구 청담동 129-3번지 *대지 : 1,204.6㎡ *연면적 : 5,000㎡, 주차 : 39대 *통 임대가격 : 협의</p> <p>특징 : 영등대교 남단 뷰 최고요지</p>	<p>삼성역 통임대(장기임대)</p> <p>*주소 : 강남구 대치동 1001-13외2 *대지 : 848.7㎡ *연면적 : 3006.81㎡ *보증금 : 59,000만원 월+관 : 8,800만원</p> <p>특징 : 2호선 삼성역2부, 유럽풍 건물</p>	